

한나라 빅2, 범여후보 모두 눌러

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 공동 여론조사

지지도 이명박 40.1% 박근혜 24.6% 손학규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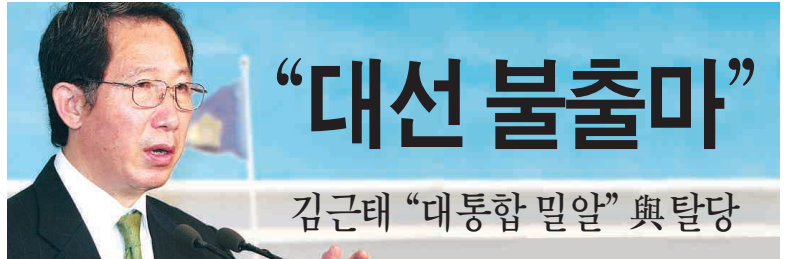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17대 대선 예비후보 전국 지지도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15.5%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한나라당 대선주자 '빅2'와 범여권 예비후보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 이해찬 전 총리,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간 가상대결에선 한나라당 두 후보가 모두 2~3배 이상 높은 지지율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일보가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전국 유력 지방일간지와 함께 리서치 앤 리서치(R&R)에 의뢰해 지난 9~11일 서울을 포함한 19세 이상 성인남녀 3천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대선 공동여론조사'결과 대선 예비후보 가운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40.1%가 이 전 시장을, 24.6%는 박 전 대표를 각각 꼽았다. 그다음으로 손 전 지사 5.3%, 정동영 전 열린

우리당 의장 2.8%, 이해찬 전 총리 1.8%, 한명숙 전 총리 1.5%,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1.2% 순이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 전 시장 50.9%를 얻어 박 전 대표(32.4%)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선 손 전 지사가 21.7%로 정 전 의장(14.4%)에 앞서 선두를 달렸다. 가상대결에서는 한나라당 '빅2'가 모두 범여권 후보들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 이 전 시장은 범여권 후보와 맞대결에서 63.8%~67.7%의 지지를 얻어 손 전 지사(21.2%), 이 전 총리(16.1%), 정 전 의장(16.8%)을 3배 이상 앞섰고, 박 전 대표도 57.3~62.9%의 지지율로 각각 28.1%, 20.3%, 20.7%에 그친 이들 후보 3명을 크게 앞질렀다. 하지만 호남지역만 놓고 보면 3명의 범여권 후보들이 박 전 대표와 맞대결에서 모두 앞섰고, 이 전 시장과 대결에서는 정 전 의



▶해설 4·5면 ▶조사 보고서 인터넷광주일보(www.kwangju.co.kr)

장만 우위를 보였다.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 50.8%, 열린우리당 9.0%, 민주노동당 6.3%, 중도통합민주당 5.1%, 국민중심당 0.6% 등이었다. 광주·전남의 정당지지도는 중도통합민주당 27.3%, 열린우리당 14.5%, 한나라당 12.8%, 민주노동당 9.7% 등으로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 이후 두 자릿수 지지율을 계속 이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67.1%로, 긍정적 응답 28.4%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최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6%포인트다.(광주와 전남은 각각 ±6.9%포인트)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은 12일 전격적으로 대선 불출마와 열린우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관련기사 3면>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시간 이후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중단하고 평화개혁세력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온몸을 던질 것"이라며 "저에게 기대권이 있다면 전부 던지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 의장과 함께 당내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김 전 의장의 백의종군 선언은 열린우리당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물론 범여권 대통합과 대선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의장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열린우리당의 당적을 벗고 대통합의 광장을 만들기 위해 발판으로 달려가겠다"며 "모두가 결단하면 통합을 이룰 수 있으며 6월까지 결단하면 시간의 장여물을 함께 낼 수 있다"고 열린우리당 탈당 의사를 확실하게 했다. 김 전 의장은 또 "2007년 대선이 대



“여성이 힘” 유권자 선언 한국여성유권자 광주연맹(회장 이순희)이 주최한 ‘핑크 파워, 여성 유권자 대회’가 12일 오후 광주시 광천동 버스터미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17대 대선 여성유권자 선언문’이 채택됐으며 ‘의정을 지키는 여성유권자 모임’ 출범식도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

휘발유값 '사상 최고'...광주 1600원 육박

기름값이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전국적으로 1당 1천700원대에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서울 여의도와 강남 일대 주유소들은 1천800원 가까이 시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도 지난 달 1당 평균 1천517원 하던 휘발유 값이 이달 들어 1천560원 정도를 넘어서 1천600원선에 육박하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주유소협회가 12일 파악한 전국 주유소 석유제품 싼거라 동향에 따르면 여의도의 A 주유소는 1천779원의 판매가격을 기록,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광주지역에서는 동구 A 주유소가 휘발유를 1천590원으로 가장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 동구 지역 주유소들은 대부분 1천570원 정도, 북구는 1천560원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남구와 서구는 1천550원 내외에 광산구는 구 단위에서 가장 싼 1천530원에 시세가 이뤄지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지방의 선택! 희망2007

지방신문협회 대선 공동취재

한국지방신문협회는 21세기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의 선택, 희망2007'을 캐치프레이즈로 대선 공동 취재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광주일보는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지방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와 공동으로 전국의 표방현장을 연결해 선거 흐름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광주일보는 이를 통해 각 정당의 후보 경선 과정과 선거 전략, 선거 운동, 지역별 판세, 투·개표 결과 등 대선의 전 과정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취재·보도함으로써 오는 12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선 공동취재단 구성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는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대선주자와 유권자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내겠습니다. 각 지역 대표신문으로 구성된 만큼 광주일보를 통해 전국의 대선 정국을 한 눈에, 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선 여론조사 수시 실시

대선 여론조사는 대선의 흐름을 유권자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만큼 선거법이 규정한 여론조사 보도 최종일 전까지 수시로 실시합니다.

지역별 동향분석 및 판세 보도

대선의 흐름을 정확히 알기 위해 각 지역 대표신문 기자들이 직접 대선 현장을 발로 뛰어 만든 '대선 민심기행'을 비롯해 각 지역별 판세분석 등을 수시로 보도합니다.

공동캠페인 실시

지방본권이 21세기 국가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보다 확실한 분권 확립을 위해 이번 대선에서 광주일보를 비롯한 회원사들은 공동 캠페인을 적극 펼쳐나갈 것입니다.

대선후보 초청 공동 토론회 및 인터뷰

한국지방신문협회는 대선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공동으로 유력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전국 지역 대표신문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토론회의 질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불법선거운동 제보 접수

불법 선거운동 근절의 주체는 유권자 여러분입니다. 제보받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즉시 취재를 거쳐 공동보도 하겠습니다. 제보 전화는 광주일보 정치부 (062) 220-0611, 0612

한국지방신문협회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유망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암총포실 062)970-0114 ▶ T.062)970-0001-9

CATS
'캣츠' 티켓 발매중!!
2007. 9. 7-16 / 광주문화회관
문의: (062)220-0541-1538-0766



금호아시아나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6월 모임은 '헌혈버스 앞'입니다
6월 14일은 세계헌혈의 날!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가슴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금호아시아나 전 직원이 하나로 뭉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더욱 절실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금호아시아나의 모든 임직원들은 오늘도 헌혈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헌혈하는 당신, 아름다운 나눔
금호아시아나는 해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헌혈행사과 직원 채용시 단체 헌혈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